

• 시편 37편

분노는 이기심과 자기애를 바탕으로 합니다.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 좌절된 욕망들, 망가진 자존심들이 표출되고 의지와 결합하여 복수, 징벌 등의 실제적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단지 분노의 감정만이 아니라 이성까지도 복수와 보복에 동원하게 됩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 스스로 감정을 억제해 보지만 이러한 ‘거짓 운유’는 결국 한 번에 폭발해 버리고 맙니다.

분노를 이기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성령 충만, 엡 5:18). 나의 옛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롬 6:4-5).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갈 2:20). 신뢰하지 못하면 맡길 수 없고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시며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을 때, 나의 감정과 의지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시 37:3-5, 13, 33, 39-40).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절체절명의 위기가 왔을 때, 엄청나게 분노하게 되는 순간에도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경청하십시오. 의로운 분노이든 불의한 분노이든 곧바로 행동으로 연결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시 37:27). 그 순간 하나님과 씨름하는 더 큰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즉 멈추고, 침묵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새김질’하는 것입니다(시 37:7-8, 31, 34). 쉽지 않지만, 분명 매우 값진 일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시 37:6, 9-11, 18, 23-24, 37).

분노의 근원을 알아차리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나는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하고 순수한 동기에서 시작되며, 사랑의 성품과 살리심의 의지로 표출됩니다.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자는 분노까지도 그분을 닮아야 합니다. 상처와 자존심, 거절과 거부로 인한 분노가 일 때에는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속이고 참소하며, 분노하고 복수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을 십자가에서 끊어 버리셨습니다.

나는 분노하는 순간에
성령의 지배를 받습니까?

- ① 나는 왜 화가 났습니까?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 ② 하나님과 씨름하며 하나님과 함께 되새김질합니까?